아름답게 돈 쓰는 길은 공익 위해 희사하는 것

'제대로 벌고 쓰기' 에 대한 성찰

박원순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해 막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카네기재단의 설립자 앤드류 카네기.

우리 속담 치고 틀린 것이 별로 없다. "뭐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속담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할 짓 못할 짓 하면서 돈은 벌어도 쓸 때는 제대로 쓰라는 하나의 경구다. 물론 돈 쓰는 과정도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이 오늘 기업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러나 어떻게 벌었든 돈을 잘 쓰는 것이 돈을 벌기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재단출연은 영원히 돈을 남기는 방법

변호사를 해보면 그런 점을 더 실감한다. 자식에게 큰 돈을 남긴 집안은 형제들끼리 분쟁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입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식에게 몽땅 물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힘들게 돈 버는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자식들은 흥청망청 쓰는 일에만 익숙하다. 결국은 빈털털이가 되고 그 재산은 온데 간데 없다. 새롭게 무슨 일을 하려 해도 돈을 벌어보지 못했으니 결국 룸펜으로 일생을 지내기 일쑤다. 이런 점에서 "3대 가는 부자 없다"고 한 속담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3대가 아니라 영원히 돈을 남기는 방법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재단법인 제도다. 법인에 돈을 출연하면 그 돈은 영원히 남아서 그 목적대로 사용된다. 법인이라는 말은 법에 의해 주어진 인격이라는 뜻이다. 법인에 한번 출연된 재산은 출연자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심지어 법인이 해산돼도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하는 방법 외에는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카네기는 철강왕으로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과정에서 못할 짓도 많이 한 기업인으로 악명도 높았다. 종업원들에게는 엄청나게 짜고 때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큰 돈을 사회공익에 바쳤다. 수천 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었고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엄청난 재산을 출연해 이 재단이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해 지금도 막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카네기는 가고 그의 사업도 갔지만 그의 돈은 남아 인류를 위해 지금도 유익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

사람은 탐욕의 동물이다. 자신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고 자식도 그런 부를 누리기를 희망해 상속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세상까지 돈 한푼 가져가기 어렵다. 자식에게 큰 재산을 남기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일이다. 쉬이 그 돈은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작은 욕망이다.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욕심이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을까. 좀더 큰 욕심은 그 재산을 사회공익을 위해 내던지는 일이다. 그것은 그의 돈과 이름과 정신을 영원히 남기는 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는 그 재산을 바로 재단에 내놓아 그 재산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아름다운 돈 쓰기 운동에 발 벗고 나서야

미국의 재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98년 현재 60만개 정도의 자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부문은 전체 GDP의 7% 규모에 이른다. 영국에서도 한해 기부금 총액이 국방비를 능가한다. 갈수록 비영리부문은 확대되고 있다. 비영리부문의 발전은 선진국의 한 징표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에도 전경련에서 1%클럽을 만들었고 웬만한 기업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비영리부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수렴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돈을 버는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이 보편화되고 비영리단체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부와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안간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게 돈 쓰기는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힘겹게 번 돈을 아름답게 쓰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

박원순 변호사는 현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재직중이다. 《NGO-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등을 펴냈다.